|  |
| --- |
| **1. 주제**  가짜 뉴스 판별과 부적절 기사 검열 가능한 뉴스 앱 개발 제안  **가반, 1팀, 20243302, 최연하** |

|  |  |
| --- | --- |
| **2. 요약**  가짜 뉴스가 만연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신문이나 방송 등 한정된 매체를 통해서만 중요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뉴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짜 뉴스가 증가하며, 온라인 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앱의 주요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뉴스 앱처럼 실시간으로 뉴스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기능, 기사를 입력하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기능, 구글 검색할 때 사용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인용 콘텐츠를 필터링해 보여주는 ‘세이프서치’ 기능처럼 기사 사진이나 제목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시 가려주는 세이프필터 기능이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세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정확한 뉴스 소식을 받아 읽을 수 있고, 가짜 뉴스를 피해 옳은 진실을 수용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3. 대표 그림**  텍스트, 스크린샷, 소프트웨어, 웹 페이지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그림 1 개발 배경 (이정현, 2024)  텍스트, 스크린샷,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텍스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그림 2 개발 배경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그림 3 UI 도안 |

|  |
| --- |
| **4. 서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 환경 특성상 가짜 뉴스는 쉽게 생산되고 퍼진다. 게다가 최근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뉴스를 신문, 방송보다는 SNS나 기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접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염정윤 & 정세훈, 2019) 기사를 통해서도 자극적 이슈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정현, 2024)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따르면, 자극적인 기사제목과 가짜 뉴스로 사람을 자극하는 황색언론이 모바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함량 미달의 기사나 "서울 영등포서 벌어진 살인사건 3건 중 1건은 조선족 범죄였다"는 기사에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영화 사진을 사용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기사를 마구잡이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진, 정준희, 최욱, 강유정, 신지원, 2019) 따라서 이러한 황색언론과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선정적, 폭력적 사진은 못 보게 가리는 앱을 구상해보았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우선 이미 존재하는 앱인 구글 뉴스 앱, MBC 뉴스 앱의 기능과 제안된 앱의 기능을 정리해보았다.  구글 뉴스는 맞춤 추천, 팔로우 기능, 모바일에 최적화된 UI 등 유용한 점이 많지만, ‘인사이트’나 ‘위키트리’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언론사의 기사나 그림 2와 같이 부적절한 사진이나 ‘어그로’성 제목이 여과 없이 사용자에게 노출된다. MBC 뉴스의 경우에는 MBC에서 게재된 기사만 보여 신뢰성은 높지만, UI가 모바일보다는 PC에 특화된 형태이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는 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앱을 제안해 극복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UI는 구글 뉴스를 참고해 사람들이 주로 접하는 경로인 SNS처럼 친숙하게 뉴스를 접해볼 수 있게 한다. 다른 뉴스 앱이 가진 팔로우 기능이나 헤드라인 기능은 포함시킬 것이다. 이 때 세이프 필터 기능을 통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진이나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숨겨진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가짜 뉴스 판별기를 추가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사를 업로드하면 판별시스템을 통해 가짜 뉴스의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받을 수 있되, 민감한 컨텐츠는 피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  |
| --- |
| **5. 본론**  이 앱은 UI, 백엔드 서버, 외부 데이터 소스로 구성된다. 이 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UI에서 뉴스 피드는 뉴스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실시간 뉴스 소식을 받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가짜 뉴스 판별기는 사용자가 기사를 입력하면, 이를 백엔드 서버의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판별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또 뉴스 피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세이프필터 시스템을 통해 필터링한다.  백엔드 서버는 뉴스 데이터베이스,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 세이프필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뉴스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은 가짜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작동한다. 세이프필터 시스템은 뉴스 기사와 사진을 분석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를 감지하고, 필터링 기준에 따라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다.  텍스트, 도표, 포스트잇 노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외부 데이터 소스는 뉴스 API와 가짜 뉴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뉴스 API는 실시간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며, 백엔드 서버의 뉴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가짜 뉴스 데이터베이스는 가짜 뉴스 판별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  U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JavaScript, React.js, CSS, 그리고 API를 호출하기 위해 Axios가 필요하다. 백엔드에서는 서버를 위해 Flask, 데이터베이스로 MongoDB, API로 Flask-RESTful가 필요하다. 외부 데이터로는 NewsAPI와 가짜 뉴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구현 방법으로는 Axios를 사용하여 뉴스 API와 백엔드 서버와 통신하게 할 것이다. 가짜 뉴스 판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가짜뉴스 판별 기법 및 해결책 고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SACM (Sensing Automatic Classification Model) 기술과 전파패턴분석 기술을 응용한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SACM 기반 서비스 시스템은 수집된 수많은 SNS 상의 빅 데이터를 저장한 후 분석을 하거나 정보 처리에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혜진, 김진영, 백주련, 2020) 세이프필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분석 기술과 텍스트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이미지 분석 기술로는 Google Vision API와 TensorFlow를 사용하고, 텍스트 분석 기술은 악성 댓글을 분별하는데 활용되는 Perspective API를 사용할 것이다. |

|  |
| --- |
| **6. 결론**  가짜 뉴스가 만연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하는 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앱의 실시간 뉴스 소식 제공, 가짜 뉴스 판별, 세이프필터를 통해 사용자는 정확한 뉴스를 쉽게 접하고, 가짜 뉴스를 피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향후 이 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MongoDB와 API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법을 익힐 것이다. |

**7. 출처**

김선호, & 김위근. (2017). 팩트체크에 대한 언론수용자 인식\_팩트체크, 가짜 뉴스 영향력 약화에 효과. “신문과방송 2017년 8월호 No.560” (페이지: 24-28). 한국언론진흥재단.

염정윤, & 정세훈. (2019).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제63권 제1호” (페이지: 7-45). 한국언론학회.

윤성옥. (2018).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17권 제1호” (페이지: 51-84). 한국언론학회.

이병구. (2024). "1% 미만의 SNS 사용자가 가짜뉴스 80% 퍼뜨려". “동아사이언스”.

이정현. (2024).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연합 뉴스”.

이혜진, 김진영, & 백주련. (2020). 가짜뉴스 판별 기법 및 해결책 고찰. “2020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페이지: 37-39).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정세진, 정준희, 최욱, 강유정, & 신지원. (2019년 9월 15일). SNS 파고든 기생언론, 언론인가 공장인가. “저널리즘 토크쇼 J”. 22: KBS 뉴스.